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2

박영민 외

1 정보의 숲에서 길을 찾기

01 요약하며 읽기

제재 ①

본책 10~13쪽

1 ② 2 별똥별 3 ⑤ 4 ② 5 ① 6 6, 7문단
7 ② 8 하지만 9 ⑤ 10 ⑤

1 (나)에서 별똥별은 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별똥별을 ‘흐르는 별’이라는 뜻으로 ‘유성(流星)’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별똥별은 주로 햇빛이 없는 시간에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별똥별은 총알보다도 빠르게 떨어져서 대부분 1초 사이에 순식간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별똥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流星雨)’라고 한다고 하였다.

2 이 글의 처음 부분인 (가)에서 ‘하늘에서 빛을 내며 떨어지는 신비로운 별똥별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하며, 이 글에서 설명하려는 대상이 별똥별임을 제시하고 있다.

3 (가)의 중심 내용은 이 글이 별똥별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문장인 ㉠이다.

4 (나)는 별똥별의 정체를, (다)는 별똥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의 중심 내용은 별똥별의 정체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라)의 중심 내용은 유성우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장인 ‘별똥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流星雨)’라고 한다.’에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

6 <보기>의 목적에 맞는 내용인 ‘별똥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6문단과 7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6문단에는 별똥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의 생각이, 7문단에는 별똥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7 (바)와 (사)에는 별똥별을 보며 사람들이 떠올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다. 이는 별똥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일 뿐, 별똥별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해가 사라진 계기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바)에 사람들이 별똥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소원을 빌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③ (사)에 고대 동양에서는 별똥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④ (사)에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별똥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었기 때문에’ 별똥별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⑤ (바)를 통해 우리나라나 일본, 칠레, 필리핀 등에서 별똥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사)의 ‘하지만’을 통해 (바)와 (사)가 대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 (아)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별똥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껴 보자고 제안하는 부분이다.

10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래의 문장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쓰는 것이 좋다.

제재 ②

본책 14~19쪽

1 ⑤ 2 ⑤ 3 ③ 4 ② 5 ③ 6 ⑤ 7 ③
8 ④ 9 ④ 10 ④ 11 ③

1 (가)에서 풀머슴만 하던 총각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생도 더라도 하늘나라로 직접 찾아가 복을 구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났다.

2 (나)에서 처녀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총각에게 “그러면 제 딱한 사정도 좀 물어봐 주세요. 도대체 저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지요?”라고 부탁하고 있다.

3 원래 하늘나라에 살던 동자들은 국화꽃이 피면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는데, 십 년을 가꿔도 꽃이 피지 않아 꽃밭 앞에서 울고 있다. 동자들이 국화꽃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은 (다)에 나타나지 않는다.

4 총각은 처녀와 동자들의 사연을 딱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주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각이 인정이 많고 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의 마지막 부분에 ‘인정 많은 총각’이라는 설명도 제시되고 있다.

5 (마)에서 총각이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천상의 사람은 깜짝 놀라며 총각을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려고 하였다. 따라서 총각이 천상의 사람에게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6 노인은 이무기로 변해 총각을 등에 태우고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줬으며, 총각은 강을 건넌 뒤 하늘에서 내려온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 오답 풀이 | ①, ④ (라)에서 노인이 “나는 사실 이 강에서 천년을 산 이무기인데 이제 승천할 때가 됐거든. 근데 그 방법을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바)에서 옥황상제는 노인의 문제를 물어보는 총각에게 “입안에 있는 세 개의 여의주 중 두 개를 뱉어 내면 당장에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네.”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노인이 입안에 여의주 세 개를 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총각이 하늘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이라고 하자, 노인은 하늘나라에 가거든 자신의 신세가 왜 이런지 알아봐 달라며 부탁을 하였다.

7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입안에 물고 있는 여의주 세 개 중 두 개를 뱉는 것이고, 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꽃밭 아래에 있는 금덩이 세 개를 파내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는 총각일 것이다. 따라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것이 고민인 처녀는 총각과 혼인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8 이 글에 총각과 다른 인물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총각과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는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총각의 여정이 드러나므로 이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

② 이 글에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이 나타나므로, 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③ 이 글은 총각이 겪은 일이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

⑤ 이 글에는 총각이 만난 인물들이 처한 문제 상황과 그 해결 방법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9 이 글에서 총각은 복을 찾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떠난다. 총각은 옥황상제에게 직접 복을 타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결과, 처녀와 결혼하며 복을 얻게 된다. 즉 이 글에는 총각이 직접 복을 찾으러 떠났다가 복을 얻게 된 과정이 나타나 있다.

10 총각은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알아낸 뒤 노인, 동자들, 처녀를 만나 고민을 해결해 준다. 총각은 처녀에게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된다고 말을 해 주고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을 뿐, 자신과 결혼하면 된다고 알려 주지는 않았다.

11 이 글의 끝 부분에서 “총각은 직접 복을 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그 마음들이 모두 다 복으로 돌아온 거야.”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착하게 살면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독집계 예상 문제

본책 20~23쪽

01 ②	02 ①	03 ⑤	04 (라), (마)	05 ②	06 ③
07 ⑤	08 ③	09 ④	10 강, 하늘나라	11 ①	12 ⑤
13 ⑤	14 비록, 거야	15 ②			

01 이 글은 별뿔별의 정체가 우주 먼지이며, 지구의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별뿔별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이나 별뿔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에서 별뿔별의 특성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별뿔별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이 글은 별뿔별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정리하는 요약 방법은 이 글에 적합하지 않다.

03 (마)는 유성우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부분으로, 중심 내용은 ‘유성우는 우주 먼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지구가 공전을 하며 다가가면, 우주 먼지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지며 생겨난다.’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중심 문장은 이 글이 별뿔별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마지막 문장이다.

② (나)는 별뿔별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한 문장에 중심 내용이 담겨 있다.

③ (다)는 평상시에 별뿔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중심 내용이다.

④ (라)는 유성우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다.

04 (라)에는 유성우가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이라는 설명이 나타나 있고, (마)에는 우주 먼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지구가 공전을 하며 다가가면, 우주 먼지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져 유성우가 생겨난다는 설명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글을 요약할 때는 (라)와 (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이 글에서는 별뿔별의 정체와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설명하고 있을 뿐, 별뿔별을 잘 관찰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별뿔별의 정체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로, 우주 먼지가 지구로 떨어지면서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열과 빛을 낸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별뿔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뿔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기도 했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나라로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을 제시하고 있다.

06 (나)에서 사례로 제시된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은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유사성을 지니지만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묶어서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07 <보기>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면 이 글을 별뿔별의 정체와 별뿔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 별뿔별을 보기 위해 노력하지는 글쓴이의 제안을 담고 있으므로, <보기>의 읽기 목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08 이 글에 등장하는 처녀, 동자들, 노인, 옥황상제 등은 주인공인 총각과 대립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인간이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간다는 거나 이무기, 옥황상제와 만나는 등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난다.

② 이 글은 총각이 복을 구하러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복이 없는 총각이 복을 얻는 과정과 처녀, 동자들, 노인의 문제 상황 및 해결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⑤ 이 글은 총각이 복을 타 오기 위해 직접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설화로, 글의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

09 (라)에서 옥황상제는 복을 타러 왔다는 총각의 말을 듣고 복 주머니를 살펴봤으나 복 주머니가 비어 총각에게 줄 복이 없자 총각을 안쓰러워했다. 따라서 총각이 옥황상제의 마음에 들지 않아 복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⑤ (나)의 '인정 많은 총각은 동자들이 안됐다 싶어 꼭 알아다 주기로 약속했지.'와 (다)의 '총각이 들으니 이무기인 노인이 참 안됐어.'를 통해 총각은 인정이 많으며 동자들과 노인이 안쓰러워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총각이 "아, 나는 하늘나라로 직접 복을 타러 가는 길ियो."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다)에서 처녀, 동자들, 노인을 차례로 만났음을 알 수 있다.

10 총각은 (가)의 마을에서 처녀를 만나고, (나)의 국화꽃 밭에서 동자들을 만난 뒤, (다)의 강에서 노인을 만났으며, 이후 (라)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만나게 된다.

11 총각은 자신도 복을 타지 못해서 직접 하늘나라로 찾아가는 중이었지만, 이무기인 노인이 승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짝하여 하늘나라에서 노인의 고민도 물어봐 주기로 한다. 이러한 총각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속담은 '계 코가 석 자'이다.

| 오답 풀이 | ② '빛 좋은 개살구'는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는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이다.

④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공언히 의논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12 (라)에서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된다는 옥황상제의 말을 전해 들은 처녀가 서럽게 울었으므로, 처녀가 웃으며 기뻐하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총각은 동자들을 도와 꽃밭을 뺏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이무기인 노인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서 용이 되더니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총각은 옥황상제에게 답을 들은 뒤 다시 두레박을 타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총각은 처녀에게 여의주와 금덩이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총각이 이것들을 가지고 처녀가 있는 마을로 향하는 장면을 제작할 수 있다.

13 처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에 결과적으로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마음씨 착한 총각과 혼인하게 되었을 뿐, 마음씨 착한 총각과 혼인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었다.

14 (라)의 마지막 문장인 '비록 총각은 직접 복을 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그 마음들이 모두 다 복으로 돌아온 거야.'에 이 글의 교훈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15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을 요약할 때는 읽기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요약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에서와 같이 처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처녀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요약하는 방법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이 있는 문단을 찾기 → 찾은 문단을 중심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기 → 정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1 원인 2 ⑤ 3 ⑤

- 1 자연재해를 크게 '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나눈 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른 것이다.
- 2 지진은 지구 내부의 힘이 지표면에 전달되면서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이다. ⑤의 내용은 '화산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 3 교과서를 읽는 목적은 주로 공부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요약할 때는 줄글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보다는 내용 구조도, 도표, 마인드맵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고난도 입심화문제

본책 26~29쪽

01 ② 02 ② 03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04 ⑤
05 ⑤ 06 ④ 07 ③ 08 ③ 09 ① 10 ③
11 금영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난다. 12 ④
13 ⑤ 14 ② 15 ㉠: 홍수, 가뭄 ㉡: 화산 활동, 지진 16 ③

- 01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글에서 필요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할 때는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이 있는 문단을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을 요약해야 한다.
- 02 (라)에 따르면 유성우는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이므로, 별뿔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우리가 보는 별뿔별의 정체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다)를 통해 별뿔별은 주로 햇빛이 없는 시간에 볼 수 있고, 선명한 별뿔별은 대개 늦은 밤이나 새벽이 되어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바)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⑤ (사)에서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별뿔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뿔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 03 (바)에는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에는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난다. (바)와 (사)의 내용을 포괄하면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바)와 (사)의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여 썼다.	

- 04 (나)에서는 별뿔별이란 어떤 것인지, 별뿔별 현상의 정체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 05 (다)의 중심 내용은 평상시에 별뿔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으므로 전체 내용을 재구성하여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 참고 자료

요약의 규칙

-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난 문장을 찾는다.
 -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한다.
 -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
 -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든다.
- 실제로 요약할 때는 기계적으로 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요약의 목적에 맞추어 정보를 재구성하고 요약문을 자신의 말로 다듬어야 한다.

- 06 (바)에는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 (사)에는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대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은 '하지만'으로 시작하여 (바)와 (사)가 대조되는 내용임을 알려 주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바)에는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난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별뿔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별뿔별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겼다는 내용은 (바)에 나타난다. 이와 달리 (사)에는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바)에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아시아에서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내용이, (사)에는 유럽에서 별뿔별을 위험한 시기를 암시하는 징조로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07 <보기>는 유성우의 개념과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를 요약하고 있으므로, 읽기 목적이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08 글을 요약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09 총각은 직접 복을 타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총각은 인정 많고 착한 성격을 지녔을 뿐,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0 총각은 동자승들이 키우는 국화에 꽃이 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옥황상제에게 묻고 있다. 이를 통해 동자승들이 국화에 꽃이 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총각은 하늘나라로 직접 찾아가 복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총각이 머슴 일을 하던 집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다.

② (라)에서 옥황상제는 총각에게 복을 주려고 했으나 복 주머니가 비어 복을 줄 수 없었다. 옥황상제가 총각에게 일부러 복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④ (다)에서 노인은 자신이 '이 강에서 천 년을 산 이무기'라며, 승천할 때가 되었는데 승천할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노인이 이무기로 변신할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⑤ 처녀는 총각에게 자신이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지를 대신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을 뿐, 자신의 신랑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다.

11 (마)에서 처녀를 만난 총각이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된다고 합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처녀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처녀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12 이 글에는 인물들의 다양한 고민이 나타나는데, 이 고민에 대해 옥황상제는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노인은 입안에 있는 여의주 세 개 중 두 개를 뱉어 내는 것으로, 동자승들은 꽃밭의 금덩이들을 파내는 것으로, 처녀는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인물들의 고민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혼인을 하지 못해 고민하던 처녀와 복을 타고 싶어 하던 총각이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 것에서 처녀와 총각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②, ⑤ 마음씨 착한 총각은 하늘에서 직접 복을 타지는 못했지만, 결국 처녀와의 결혼으로 복을 얻는다. 이와 같은 결말에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교훈이 드러난다.

③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된다는 해결 방법은 처녀와 총각이 혼인하게 될 것이라는 복선으로 볼 수 있다.

13 <보기>의 읽기 목적에 따르면 이 글의 교훈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글의 교훈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다.



참고 자료

읽기 목적에 따라 「복 타러 간 총각」 요약하기

인물의 여정에 따라 요약하기	총각의 여정에 따라 '마을 → 국화꽃밭 → 큰 강 → 하늘나라 → 큰 강 → 국화꽃밭 → 마을'의 순서대로 요약함.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요약하기	처녀, 동자들, 노인이 처한 문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함.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하기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중심으로 요약함.

14 이 글은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는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진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이 글에는 지진의 정의만 나타날 뿐 지진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15 (나)에서 자연재해 중 기상에 의한 재해로 홍수와 가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화산 활동과 지진을 설명하고 있다.

16 교과서를 읽는 목적은 주로 공부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요약할 때는 줄글로 요약하기보다는 내용 구조도, 도표, 마인드맵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핵심 개념을 줄글로 자세하게 정리하거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하는 것은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요약의 목적과 맞지 않다.

④ 각 문단의 중심 내용보다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하며,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글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정보를 그대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며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활동 학습

본책 32~37쪽

1 ⑤ 2 ⑤ 3 ① 4 주제, 중요, 독자 5 ② 6 ②
7 ② 8 ① 9 친구들, 삭제

- 1 우주는 '독도의 날'을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한 것이다. 우주가 글을 쓴 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자료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우주는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한 글을 써서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을 읽을 독자는 학교 친구들, 글을 실을 매체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다.

③ 우주는 독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도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④ 우주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독도를 알리는 글을 써 봐야겠다고 하였다.

- 2 (가)~(라)는 모두 '독도의 지리'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러나 (가)와 (라)는 전자 매체인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이고, (나)와 (다)는 인쇄 매체인 신문과 백과사전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따라서 (가)~(라)는 같은 종류의 매체에서 수집한 것이 아니다.

- 3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통합하거나 자료의 형식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독도가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4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수집한 자료는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과 중요도 등을 따져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자료에 제시된 정보가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지, 글에 담을 만큼 중요한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지를 따져 본 후 제외할 자료와 수정할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 5 (바)에는 독도 새우가 독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독도의 상징물은 독도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바)를 ②와 같이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는 독도 주변의 바다에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마)를 활용하여 독도의 수산 자원이 가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사)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 자료로, 독도의 연도별 공시 지가를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도표에는 수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래프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으며, '공시 지가'라는 어려운 용어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할 수 있다.

④ (아)는 독도 주변 바다에 매장된 연료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자료로, 독도의 지하자원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⑤ (자)에서는 독도의 암석과 지형, 지질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는 내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6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처음-가운데-끝'의 구조에 맞게 내용을 배열(ㄷ)해야 한다. 또한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ㄱ)하고, 앞서 선별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개요에 관련 내용을 추가(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배열한 내용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ㄹ. 제목을 지을 때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말을 사용하기보다는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개요에 따르면 '가운데' 부분에는 '독도의 지리와 독도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독도의 역사 기록은 '가운데' 부분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이 글의 핵심 내용과도 거리가 멀다.

- 8 이 글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에 있으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또 독도는 동도에 한해서 관광을 허용하고 있어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하였다.

- 9 이 글을 고쳐 쓸 때는 글의 독자인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라는 용어를 '육지 근처 물가에 사는 생물'과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고 쉽게 풀어쓰는 것이 좋다. 또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삭제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 글의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글의 목적과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없는지 확인한다.
- 독자의 흥미를 끌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쓴다.
-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여 도표, 그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다.
-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

독집계 **썩** 예상 문제

본책 38~41쪽

-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② 06 지하자원의 가치
07 ②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풀어서 썼다. 14 ① 15 ④ 16 ④

- 01 <보기>에서 우주는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주제로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고, 이를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리려 하고 있다. 학교 누리집 게시판은 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며, 우주는 이 게시판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글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글 쓰기, 고쳐 쓰기의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 03 (가)는 독도의 위치가 울릉도와 가깝다는 것을 수치로 표현한 자료, (나)는 흐린 날에도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일 정도로 독도와 울릉도가 가깝다는 점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합하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 줄 수 있다.
- 04 (다)는 독도의 역사 기록으로, 독도의 지리를 설명하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영상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글에 활용할 수 없다.
- 05 (가)와 (나)는 독도의 수산 자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자료이다. 그러나 독도 새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나)가 독도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설명하고 있는 (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마)는 모두 독도의 자원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③ (다)에는 '공시 지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독자를 고려하여 이를 쉬운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라)에는 독도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다)에는 독도에 있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묶어서 활용할 수 있다.
⑤ (마)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06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쓸 때, (가)와 (나)는 수산 자원의 가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다)와 (라)는 독도의 지하자원이 지닌 가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07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요를 작성하여 글의 내용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 중심 제재와 종속 제재 혹은 전체 주제와 종속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함.
- 글의 중심 내용을 나열하고 중심 내용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드러내는 내용 구조도를 작성함.
- '처음-가운데-끝' 등 글의 종류에 적합한 구조로 내용을 배열함.
-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제목을 지음.

- 08 (다)에서 독도는 동도에 한해서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동도와 서도 모두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 공존하며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 종까지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바)에서 독도 특유의 지질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 덕분에 독도가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를 비롯해 주변에 딸린 89개의 작은 바위섬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독도 주변의 깊은 바다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였다.
- 09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가)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설명하려는 대상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나)~(바)는 글의 '가운데' 부분으로, 독도의 지리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는 글의 '끝' 부분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당부의 말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10 (라)는 독도 주변의 바다가 수산 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라는 내용이므로, 소제목으로는 '독도의 수산 자원의 가치'가 어울린다. '독도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생물'은 (라)의 일부 문장에 대한 내용이므로 소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11 제시된 자료는 천장굴의 사진으로, 이는 독도의 암석, 지형을 비롯해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바)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2 이 글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주제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끝'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독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

을 당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근거는 이 글의 주제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사)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독도의 위치와 독도의 모습에 대한 내용 이므로, 여러 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는 독도의 전체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다)에는 영상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③ (마)에서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바)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중심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독도의 기후에 대한 문장을 삭제할 수 있다.

- 13**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은 한자어라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기>와 같이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확인
독자를 고려하여 쉽게 풀어써 썼다는 내용을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글쓴이의 의견보다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처음-가운데-끝’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는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보고문 등이 포함된다.

- 15**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는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글 쓰기-고쳐 쓰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16** 글을 쓴 후에 고쳐 쓰는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 독자, 자료의 활용, 쓰기 윤리를 고려하여 점검해야 한다.

발전 학습

본책 42~43쪽

1 ② 2 ② 3 ②

- 1** 보고서는 어떤 주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이나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전달하려는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그러나 조사 소감과 평가 부분에서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 2** (다)는 성인들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의 주제에 맞지 않는 정보이므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외해야 한다.

- 3** (나)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중학생의 비율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이책을 읽은 중학생의 비율은 낮아지고, 전자책을 읽은 중학생의 비율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이책과 전자책을 읽은 중학생의 비율이 모두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중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평균 권수를 조사한 자료로, 종이책의 권 수는 줄어든 반면, 전자책의 권 수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종이책을 읽은 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 전자책을 읽은 학생 수가 늘어났음을 보여 주는 비슷한 내용의 자료이며 두 자료 모두 문화 체육 관광부 누리집이 출처이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4. (1)’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라)는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자료로, 이를 활용하면 중학생들의 전자책 선호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⑤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소감을 쓰기로 하였으므로 ‘5’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난도 학습 문제

본책 44~45쪽

01 ③ 02 ③ 03 독도의, 습하다.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04 ① 05 ④

- 01** 이 글은 (나)와 (다)에서 ‘독도의 지리’를 설명한 후, (라)와 (마)에서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02**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라)는 독도의 자원 가치, (마)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 글에서 비교하거나 대조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고체 연료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② (라)에서 독도 주변의 바다에 서식하는 어류로 꽂치와 방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④ (마)에서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독립문바위, 천장굴 등의 다양한 암석과 지형을 나열하고 있다.

⑤ (라)에서 독도의 자원 가치를 수산 자원의 가치와 지하자원의 가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다양한 설명 방법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어떤 대상의 개념이나 의미를 명확하게 풀이하여 설명하는 방법
예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인과	원인에 따른 결과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열거	여러 가지 대상 또는 예나 사실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방법
구분	하나의 대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분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분석	복합적인 대상을 세부적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 03 (마)에서 삭제해야 할 문장은 ‘독도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14도로 온난한 편이며, 독도의 날씨는 안개가 잦고 눈과 비가 자주 내려서 비교적 습하다.’이다. 이 문장은 문단의 중심 내용인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삭제해야 할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알맞게 썼다.	
삭제해야 할 이유로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4 이 글의 조사 동기와 목적에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를 파악하고 독서 활동을 장려하려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 보고서’가 이 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05 이 글의 ‘4. 조사 내용’의 (2)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타난다. 중학생들의 전자책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는 ‘보관과 휴대가 편리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 ! 오답 풀이 !** ① ‘4. 조사 내용’의 (1)에 따르면, 1년 동안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중학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전자책을 읽은 비율은 증가하였다.

- ② ‘4. 조사 내용’의 (1)에 따르면, 중학생이 1년 동안 읽은 전자책의 권 수는 증가하였다.
- ③ 성인들이 독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1. 조사 동기와 목적’과 관련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5. 조사 소감과 평가’에 따르면, 글쓰기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종이책과 전자책을 융통성 있게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46~49쪽

- 01 ② 02 ② 03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별똥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었기 때문이다. 04 ⑤ 05 금덩이 세 개는 동자들이 주었고, 여의주 두 개는 노인이 주었다. 06 ④ 07 ④ 08 ① 09 ⑤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③ 15 출처

- 01 (나)는 유성우란 무엇인지 설명한 문단으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별똥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8월과 12월에 많은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유성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02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윤서는 유성우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미리 조사해 보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유성우 현상의 개념과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가 나타난 (나)와 (다)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우주는 별똥별의 정체가 무엇이고, 별똥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쓰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별똥별의 정체를 설명한 (가), 별똥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이 드러난 (라)와 (마)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 03 사람들이 별똥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이유는 해당 문장의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별똥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옛날 사람들은 별똥별을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별로 인식했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4 이무기인 노인은 강에서 천 년을 살고도 승천을 못 했는데, 이 고민의 해결 방법은 입안에 있는 세 개의 여의주 중 한 개만 무는 것이었다. 고민이 해결된 노인은 고맙다고 하며 여의주 두 개를 총각에게 준다. 즉 노인이 여의주 두 개를 총각에게 준 것은 고민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고민이 해결된 뒤 고마움의 표시로 여의주 두 개를 총각에게 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동자들의 고민은 (나)의 '옥황상제님께서 국화꽃이 피면 다시 하늘로 불러 주신다고 했는데, 십 년을 가꿔도 꽃이 피질 않는다'는 말에 나타난다.

② 노인의 고민은 (다)의 '나는 사실 이 강에서 천 년을 산 이무기인데' 승천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 방법을 도통 모르겠다'는 말에 나타난다.

③ 처녀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바)의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된다'는 말에 나타난다.

④ 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마)의 '꽃밭 아래에 금덩이들이 묻혀 있어서 국화꽃이 피지 않았단다'라는 말에 나타난다.

05 노인은 고민의 해결 방법을 알려 준 총각에게 여의주 두 개를 준다. 동자들 또한 꽃밭 아래에 금덩이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 준 총각에게 금덩이 세 개를 준다. 즉 총각이 가진 금덩이 세 개는 동자들이, 여의주 두 개는 노인이 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금덩이 세 개는 동자들이, 여의주 두 개는 노인이 주었음을 각각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06 총각은 마을에서 처녀를, 꽃밭에서 동자들을, 강에서 노인을 만나 각각의 고민을 듣는다. 그 후 하늘나라에 가서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을 듣고, 다시 강에서 노인을, 꽃밭에서 동자들을, 마을에서 처녀를 만난다. ④의 '하늘'은 동자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올라간 곳으로, 총각의 여정과는 관련이 없다.

07 총각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얻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처녀와 결혼하며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동자들은 십 년이나 국화꽃을 가꾸었지만 꽃이 피지 않아 슬피 울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낄 수 있다.

② 총각은 복을 타기 위해 하늘나라까지 직접 찾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③ 총각은 처녀, 동자들, 노인의 사연을 듣고 이를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⑤ (다)에서 노인은 이무기로 천 년을 살고도 승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다.

08 이 글을 쓴 목적은 (가)에 나타난다. 이 글은 독도의 위치와 전체 모습 등을 소개하고, 독도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다.

09 <보기>는 독도 새우는 어획량이 적어 값이 비싸다는 내용을 담은 텔레비전 자료이다. 독도 새우가 독도의 수산 자원이라는 하지만, 글에 담을 만큼 중요한 정보는 아니므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의 출처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 독도 새우에 대한 텔레비전 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독도 새우의 어획량 수치는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독도 새우는 독도에서 나오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므로 독도의 자원 가치에 해당한다.

10 제시된 자료는 독도의 공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로, 독도 땅의 경제적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인 (라)에서 활용할 수 있다.

11 이 글에는 독도에 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영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독도의 가치를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추가할 수 있다.

12 (나)에서는 독도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위치가 나타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글을 쓰는 목적은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것으로, (가)에 제시되어 있다.

③ (다)에 독도에 가는 방법이 나타나 있으며, 여객선의 시간표와 배표의 가격까지 제시하는 것은 독도의 지리나 가치를 설명하려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④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개념은 (라)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산의 개념과 세계의 대표적인 화산섬은 독도의 지리나 가치를 설명하려는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13 (마)에서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은 독도의 연평균 기온과 날씨에 대한 정보이므로,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다. 따라서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였는가?'라는 점검 기준에 따라 ㉠을 삭제할 수 있다.

14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하고 선별한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선별한 자료는 서로 비슷한 내용일 경우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글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한 후에도 조직한 내용이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15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가져와서 글을 쓸 때는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원래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써야 한다.

2 단어는 나누어 보고 매체는 견주어 보고

01 품사의 종류와 특성

활동 학습

본책 54~61쪽

- 1 ④ 2 ① 3 치고, 웃었다 / 나, 는, 박수, 를, 친구, 는
4 ② 5 ⑤ 6 ③ 7 어떤, 불쑥, 쿵쾅 8 ② 9 ⑤
10 ② 11 ⑤ 12 ②

- 1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눈다. 기능에 따라 같은 체언으로 묶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명사와 대명사, 수사처럼 의미는 다를 수 있다.
- 2 '무슨'은 뒤에 오는 체언 '소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체언으로, 제시된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3 '치고', '웃었다'의 기본형은 '치다', '웃다'이지만 문장에서 쓰일 때 '쳐서', '쳤다', '웃고', '웃어서'와 같이 형태가 변한다. 반면에 '나', '는', '박수', '를', '친구', '는'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4 <보기>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①의 '셋'은 수사, ③의 '그녀'는 대명사, ④의 '가방'과 ⑤의 '행복'은 명사이다. ②의 '무척'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는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답다', '뛰다'와 같은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이고 '답답하다', '곱다'와 같은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 6 '차갑다', '거칠다'는 모두 대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다'는 동사, '덥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② '보다'는 동사, '착하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④ '달리다'는 동사, '예쁘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⑤ '먹다'는 동사, '크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 7 문장에서 어떤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으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어떤'은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불쑥'은 용언 '나타나서', '쿵쾅'은 용언 '두드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8 '는', '와', '를'과 같은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 9 '창춘'은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아니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10 '너무'는 용언 '많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 11 수빈의 말에는 하늘의 상태를 서술하는 말인 '푸르다, 높다' 등의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지호의 말에도 기분의 상태를 서술하는 '좋다', '상쾌하다' 등의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2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알맞는'은 '알맞은'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알맞다'는 형용사이다.
③, ④ '찾다'는 동사이므로 명령형 어미인 '-아라'와 결합할 수 있다.
⑤ '알맞는'은 '알맞은'으로 고쳐 써야 하고, '찾아라'는 동사라는 품사의 특성에 맞게 쓰였다.

독집해 썩 예상 문제

본책 62~65쪽

-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④ 07 ②
08 ⑤ 09 하얏다, 따스하다 10 ② 11 ③ 12 ①
13 앞으로는 착해지자(착하게 살자). 14 ④ 15 ② 16 ③
17 아이큐, 야, 응 18 ① 19 ② 20 ② 21 ① 22 ④
23 ⑤ 24 ⑤ 25 ③ 26 ② 27 '우리', '저기', '그녀'는
대명사, '는', '에서', '와'는 조사, '만나다', '놀다'는 동사이다.

- 01 감탄사는 다른 말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는 조사이다.
- 02 '보다, 잡다, 귀엽다'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구름, 이순신, 첫째'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그리고 '앗, 야'는 문장에서 느낌,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독립언이다. 따라서 <보기>의 단어들은 문장에서의 역할, 즉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03 '정말'은 부사, '기르다'는 동사, '다섯'은 수사(관형사)로, 명사만 인정하는 끝말잇기 규칙에 어긋난 단어들이다.
- 04 '거기'는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 05 '몹시'는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로, 부사이다.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관형사이다.
- 06 ①~⑥은 모두 대상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그저'는 앞서 소영이 말한 '팥빙수'를 대신 가리키는 말이다.

07 '한'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 단어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 수사이다.

08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용언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에서 '만들다(동사)', '입었다(동사)'가 ㉠에 해당한다.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모두 불변어로, <보기>의 문장에서 '우리(대명사)', '는(조사)', '새(관형사)', '옷(명사)', '을(조사)'이 ㉡에 해당한다.

09 '하얀'의 기본형은 '하얗다', '파스한'의 기본형은 '파스하다'이다. 문장에서 쓰일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에 '-다'를 붙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한다.

10 '싫다'는 형용사, '가다'는 동사로, 품사가 다른 단어들이다.

| 오답 풀이 | ① '눈송이'와 '생'은 명사이다.

③ '겨울'과 '백설'은 명사이다.

④ '숨기다'와 '뛰어들다'는 동사이다.

⑤ '머뭇거리다'와 '되다'는 동사이다.

11 ㉡ '맛있는'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이외의 단어들은 모두 동사이다.

12 <보기>와 같이 청유형 어미 '-자', 현재형 어미 '-는다', 명령형 어미 '-어라'를 붙일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다. '자다', '집다'는 모두 동사로 <보기>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사다'는 동사, '차갑다'는 형용사이다.

③ '닫다'는 동사, '가볍다'는 형용사이다.

④ '좋다', '기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⑤ '잠그다'는 동사, '복잡하다'는 형용사이다.

13 <보기>의 '착하다'는 형용사로, 청유형 어미인 '-자'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착하다'와 보조 동사 '-(어)지다'를 결합한 '착해지다'를 '착해지자'와 같은 청유형으로 활용하거나, 동사 '살다'와 함께 써서 '착하게 살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제일'은 용언 '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이다.

②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가변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③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 주는 것은 관형사이다.

⑤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것은 체언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15 '자꾸'는 부사로, 뒤에 오는 용언 '두근댄다'를 꾸며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아주'는 또 다른 부사인 '조금'을 꾸며 준다.

③ '매우'는 용언인 '행복한'을 꾸며 준다.

④ '일찍'은 용언인 '일어나면'을 꾸며 준다.

⑤ '마침내'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16 ㉠과 같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는 격 조사로, '이/가', '의', '을/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 같이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보조사로, '은/는', '도', '만', '조차' 등이 있다.

17 <보기 1>에서 설명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는 불변어이며, 그 중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는 단어는 독립언이다. <보기 2>의 문장에 쓰인 독립언은 감탄사인 '아이쿠', '야', '응'이 있다.

18 <보기>에 따르면 헤미가 다른 과목을 잘하는지 알 수 없지만 체육을 잘한다고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은'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빈칸에 '도'가 들어가면 헤미가 다른 과목을 비롯하여 체육까지 잘한다는 뜻이 된다.

③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빈칸에 '조차'가 들어가면 헤미가 다른 과목을 비롯하여 체육까지 잘한다는 뜻이 된다.

④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⑤ '밖에'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19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지만,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만 그 형태가 변하여, '이니', '이고'와 같이 쓸 수 있다.

20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이리'와 ③ '개굴개굴'은 부사, ④ '두'와 ⑤ '온'은 관형사로 모두 수식언에 해당하지만, ② '깊은'은 '산이 깊다'와 같이 주어를 서술하는 형용사로 용언이다.

21 '에구머니'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22 '모든'은 체언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3 <보기>의 문장에는 '이번', '우승'과 같은 명사, '우리'와 같은 대명사, '과연'과 같은 부사, '가', '에도(에+도)', '을'과 같은 조사가 쓰였다. <보기>에 쓰이지 않은 품사는 관형사이다.

- 24 '즐겁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즐거우세요' 대신 '즐겁게 보내세요'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25 '풍당'은 '던지자'를, '일렁일렁'은 '퍼져'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이와 같은 부사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생동감을 더해 주는 효과가 있다.
- 26 '눈부신(눈부시다)'과 '불길한(불길하다)'은 모두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형태가 변할 수 있는 형용사이다.
- | 오답 풀이 |** ① '익는(익다)'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③ '아', '오'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이다.
 ④ '적막하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⑤ '끓어졌느니(끓어지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27 '우리', '그녀'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고, '저기'는 장소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는', '에서', '와'는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만나다', '놀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발전 학습

본책 66~67쪽

1 ⑤ 2 ② 3 ① 4 재학생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1 ①의 명사 '모두'는 조사와 결합하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④의 부사 '모두'는 뒤에 오는 용언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⑤의 '모두'는 대조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는'과 결합한 명사로, ①의 예에 해당한다.
- 2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의존 명사 '것'은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보는V것도'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의존 명사 '수'는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먹을V수가'로 고쳐 써야 한다.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한V근'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조사 '에게'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하므로, '산타에게'로 붙여 써야 한다.
- 3 수사는 체언이므로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한 반면, 관형사는 수식언이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수사인 다른 단어들과 달리 ①의 '다섯'은 체언인 '상자'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4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보기>의 문장에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로써'를 사용해야 한다.

고난도 읽 심화문제

본책 68~71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③ 06 ㉠은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므로 대명사이다. ㉡은 뒤에 오는 체언인 '모습'을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07 ④ 08 ③ 09 ① 10 ① 11 ③ 12 ㉠ 엄마, 너희 ㉡ 아휴, 옛, 꽤 13 ① 14 ① 15 ② 16 ④ 17 ③ 18 '공부하다, 풀다, 나가다, 놀다'는 동사이며, '어렵다, 후련하다, 흥분하다'는 형용사이다. 19 ① 20 ④ 21 ③ 22 ⑤ 23 ① 24 ㉠은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진우 역시 축구를 좋아한다는 의미이고, ㉡은 진우가 다른 사람과 달리 단독으로 축구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도'는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하고, '만'은 '단독, 한정'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기 때문이다.

- 01 '장영실'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말은 '평화', '사랑'과 같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 02 우리말의 단어는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용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아주'는 부사, '어느'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하지만, '하얀'은 형용사로 용언에 해당한다.
- | 오답 풀이 |** ① '조차', '까지', '에'는 모두 조사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② '네', '음', '아이코'는 모두 감탄사로 독립언에 해당한다.
 ③ '마음'은 명사, '그대'는 대명사, '여섯'은 수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⑤ '막다', '돌리다'는 동사, '즐겁다'는 형용사로 모두 용언에 해당한다.
- 03 '저것'은 '술방울'을, '이것'은 '물'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로, 모두 사물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장소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는 '여기'이다.
- 04 ㉠은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과 ㉢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 오답 풀이 |** ㉠ 체언 '컬레'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05 ㉔ ‘아직’은 용언 ‘오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㉓의 문장에서 ‘아니’는 감탄사, ‘어떤’은 체언 ‘생각’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㉑ ‘너희’는 대명사로, ①의 문장에서는 대명사 ‘이곳’이 사용되었다.

② ㉒ ‘어느’는 관형사로, ②의 문장에서는 관형사 ‘옛’이 사용되었다.

④ ㉔ ‘우아’는 감탄사로, ③의 문장에서는 감탄사 ‘야’가 사용되었다.

⑤ ㉕ ‘들뜨다’는 동사로, ⑤의 문장에서는 동사 ‘받다’가 사용되었다.

- 06 ㉑의 ‘그’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㉒의 ‘그’는 뒤에 오는 체언 ‘모습’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대명사는 ‘그가’, ‘그는’과 같이 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평가 기준	확인
㉑의 품사와 그 품사에 해당하는 이유를 알맞게 썼다.	
㉒의 품사와 그 품사에 해당하는 이유를 알맞게 썼다.	

- 07 나머지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인 명사나 대상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㉔는 ‘그가 노래를’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부르다’와 같은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 08 ‘오느’는 동사이고 ‘빨간’은 형용사이므로 같은 품사끼리 묶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돌’과 ‘돌째’ 모두 수사에 해당한다.

② ‘창밖’과 ‘안전’ 모두 명사에 해당한다.

④ ‘나란히’, ‘많이’는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⑤ ‘내다보니’, ‘걸어간다’ 모두 동사에 해당한다.

- 09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다. ‘행복하다’는 보조 동사 ‘-(어)지다’와 결합하여 ‘행복해지다’가 될 경우에 ‘행복해지자’와 같은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는 ‘행복하게 지내자’처럼 바뀌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줍다’는 동사로,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성실하다’는 형용사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잡다’는 동사로,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알맞다’는 형용사로, 현재형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0 ‘바람’은 명사, ‘우리’는 대명사, ‘넷’은 수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하지만, ‘아무’는 뒤에 오는 체언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 11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다. ‘문득’은 용언 ‘그리워졌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명사 ‘여름날’을 꾸며 주는 관형사 ‘어느’가 사용되었다.

② 명사 ‘웃’을 꾸며 주는 관형사 ‘한’이 사용되었다.

④ 명사 ‘마음’을 꾸며 주는 관형사 ‘이’가 사용되었다.

⑤ 명사 ‘신’을 꾸며 주는 관형사 ‘새’가 사용되었다.

- 12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은 ‘녕다’, ‘답다’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엄마’, ‘너희’, ‘아휴’, ‘옛’, ‘꽤’이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중에서, 문장 내의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는 체언인 ‘엄마’, ‘너희’이며 그렇지 않은 단어는 ‘아휴’, ‘옛’, ‘꽤’이다.

- 13 ‘저’는 체언 ‘아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 ‘그런’은 체언 ‘모습’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품사가 같다.

| 오답 풀이 | ② ‘저’는 관형사, ‘설레는’은 동사이다.

③, ④ ‘자꾸’와 ‘얼른’은 부사, ‘그런’은 관형사이다.

⑤ ‘설레는’은 동사, ‘잠깐’은 부사이다.

- 14 ‘어떤’은 체언 ‘불평’을, ‘온갖’은 체언 ‘정성’을 꾸며 주는 관형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 오답 풀이 | ②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관계언인 조사이다.

③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수식언 중에서 부사이다.

④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독립언인 감탄사이다.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은 용언인 동사, 형용사이다.

- 15 ‘여보’는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부름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된 감탄사이다.

- 16 ‘과연’은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부사 ‘쌍쌍’이 동사 ‘달린다’를, ⑤ 부사 ‘활짝’이 동사 ‘웃는’을 꾸며 주고 있다.

- 17 <보기>의 내용 중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불변어, 홀로 쓸 수 없으며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것은 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것은 보조사이다. ‘까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가’, ‘을/를’, ‘이다’는 홀로 쓸 수 없으며 다른 말에 붙어 쓰이지만 다른 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인 격 조사에 해당한다.

- 18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공부해

서(공부하다), ‘풀었더니(풀다)’, ‘나가서(나가다)’, ‘놀아야겠다(놀다)’는 동사이며, ‘어려운(어렵다)’, ‘후련하다’, ‘홀가분하게(홀가분하다)’는 형용사이다.

평가 기준	확인
용언을 모두 찾아 썼다.	
동사와 형용사로 품사를 구분하여 썼다.	
용언의 기본형으로 썼다.	

19 ‘송알송알’, ‘조롱조롱’, ‘대롱대롱’, ‘총총’, ‘방긋’은 부사로,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20 ㉠에는 동사 ‘도착하다’, ㉡에는 동사 ‘날다’, ‘앉다’가 사용되어 모두 청유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 ‘-아라’를 붙여 쓸 수 있다.

| 오답 풀이 | ㉠ ㉠에 쓰인 용언은 ‘도착하다’ 1개이며, ㉡에 쓰인 용언은 ‘날다’, ‘앉다’로 2개이다.

㉡ ㉠에는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으며, ㉡에는 관형사 ‘한’이 쓰였다.

㉢ ㉠에는 ‘나’라는 대명사가 1개 사용되었고, ㉡에는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에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 ‘여보세요’가 사용되었으며, ㉡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21 ‘적막하다’는 ‘고요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22 ‘그럼’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오’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 ‘이봐’는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 오답 풀이 | ㄱ의 ‘설마’는 부사이며, ㄱ과 ㄴ에 감탄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23 <보기>는 형용사에 대한 설명으로, ㉠의 ‘달면(달다)’과 ‘쓰면(쓰다)’이 형용사에 해당된다.

24 ‘도’와 ‘만’은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은 ‘또한’의 뜻을 지닌 ‘도’가 붙어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진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은 ‘단독’을 뜻하는 ‘만’이 붙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우뿐이라는 의미이다.

평가 기준	확인
㉠과 ㉡의 의미를 썼다.	
㉠과 ㉡ 사이에 의미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2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비교

본책 74~79쪽

활동 학습

1 ① 2 ① 3 ⑤ 4 ㉠ 대중 매체 ㉡ 개인 인터넷 방송

5 ② 6 ③ 7 실시간 상호 작용 8 ② 9 ③

10 ② 11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1 ㉠은 전문 제작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한 것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뉴스, 라디오, 스포츠 신문은 모두 대중 매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제작자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에 공유하는 방송이다. 따라서 공적인 정보보다는 사적인 정보에 가까우며,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방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3 <보기>의 매체는 대중 매체 중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 방송이다. 텔레비전 방송은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는 어렵다.

4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이에 속한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제작자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방송이다.

5 텔레비전 방송은 연출, 촬영, 출연, 편집, 음향 등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방송 제작에 참여하므로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 오답 풀이 | 나, 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설명이다.

ㄱ. (가)에서는 방송 촬영 후, 편집의 과정을 거쳐 시청자에게 방송이 되고 있다.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은 (나)에 나타난 특징이다.

6 (나)의 ‘오늘은 여유가 생겨서 평일이지만 방송을 해 보려고 해요.’라는 말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고정된 시간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가) 대중 매체는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엄격한 심의 규정을 거쳐 방송되는 반면, (나)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제작하고, 심의 규정으로부터 제약도 덜 받는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가) 대중 매체이다.

㉡ (가)는 촬영 후 편집을 거친 다음 방송을 내보내지만, (나)는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방송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중에 정보를 수정하기 쉽다는 특성을 지닌다.

④ (가)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나)는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 대중 매체이다.

⑤ (가) 대중 매체는 전문적인 장비와 촬영 장소,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한 반면, (나)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 없이도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다.

7 대중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기 어렵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댓글 등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며 실시간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8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이전에 시청했던 영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추천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우연히 시청하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해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시청하는 경우는 대중 매체 시청 시 많이 발생한다.

③, ④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해진 시간에 시청하는 것은 대중 매체의 특성에 해당된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방송을 찾아 시청하는 특징이 있다.

9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대중 매체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개인 인터넷 방송의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방송을 전 세계에서든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0 나. 대중 매체나 개인 인터넷 방송을 이용할 때는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ㄴ. 매체 이용자는 매체에서 얻은 정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매체를 이용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ㄷ. 개인이 방송을 제작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은 물론 전문가가 제작하는 대중 매체를 시청할 때도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ㄹ. 재미를 기준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기보다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등을 기준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교적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도 방송을 제작할 수 있으며, 방송 심의 규정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독집 **예상 문제**

본책 80~83쪽

- 01 ⑤ 02 ④ 03 ③ 04 ㉠ 책, 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전 ㉣ 인터넷, 스마트폰 05 ③ 06 전문, 개인 07 ① 08 ⑤ 09 ④ 10 ③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 상대를 배려하여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1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사나 뉴스 등은 대중 매체에 속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가 모두 개인 인터넷 방송인 것은 아니다.

02 대중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하고, 매체는 어떤 내용을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건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03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제작자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에 공유하면, 시청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의 채널을 찾아가서 시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은 이 글에서 전문가의 마지막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불특정 다수가 신속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할 때 주로 활용되는 매체는 대중 매체이다.

04 대중 매체에는 책,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가 있다. 또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인터넷, 스마트폰도 새로운 형태의 대중 매체에 해당한다.

05 (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심의 규정을 거쳐 방송하기 때문에 (나)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6 (가)는 촬영, 출연, 진행, 편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나)는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07 [A]로 미루어 볼 때, 개인 방송의 진행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비교적 전문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가)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실시간 소통이 어려운 반면,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소통하기에 용이하다. 이는 각 매체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매체 활용 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 아니다.

09 대중 매체의 시청자도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10 <보기>를 통해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각각의 특성을 서로 취하면서 두 매체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대중 매체인 (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 인터넷 방송인 (나)는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한다.

12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모두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대중 매체는 심의 규정을 거친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심의 규정을 거치지 않는다.

③ 동일한 정보를 방송해도 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④ 대중 매체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의 사회적 파장이 큰 편이다.

⑤ 매체의 영향력은 시청자의 특성, 시청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다.

13 (가)는 대중 매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하여 (나)에 비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나)는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방송을 검색해 시청하므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오답 풀이 | ㄹ. (가)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가)가 (나)에 비해 방송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4 매체를 이용할 때는 매체에서 다룬 내용이 올바르고 공정한지 따져 보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5 <보기>를 통해 비속어, 비난하는 표현 등 매체 이용자가 잘못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체를 이용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발전 학습

본책 84쪽

1 ⑤ 2 ④

1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누리집은 비교적 정확성이 떨어진다. 인공 지능의 정의와 같은 내용은 백과사전, 책, 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참고하여 탐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매체라고 해서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 매체를 이용할 때는 정보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지, 균형 있는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고난도 입심화 문제

본책 85~87쪽

01 ⑤ 02 (가)~(다)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실시간 상호 작용을 하기 어렵지만, (라)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실시간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03 ② 04 ② 05 ① 06 꺾임김치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준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전문성이 낮다.

07 ② 08 ⑤ 09 ④ 10 ③

01 (가)~(다)는 제작한 콘텐츠를 지정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지만, (라)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전달한다.

02 (가)~(다)는 대중 매체로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인 (라)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라)를 바르게 분류하였다.	
소통 방식의 차이점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3 앵무새 기르기와 같은 개인적인 관심사는 (가)와 같은 대중 매체보다 (라)와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주제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

04 (가)는 촬영과 편집이 끝난 방송을 정해진 시간에 내보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나)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내용을 즉석에서 수정하기도 한다.

| 오답 풀이 | ① 대중 매체는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를 바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심의 규정에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고, 전문적인 검증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다.

④ (나)는 채팅, 댓글을 통해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을 할 수 있다.

05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의 관심사, 취미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정보만 전달하도록 제약하고 있지는 않다.

06 방송 진행자가 꺾임김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 준다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전문성이 낮다는 내용을 썼다.	
방송 진행자의 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7 대중 매체인 (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인 (나)는 방송에 접속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가)의 시청자 수가 더 많으므로, (나)보다 (가)의 영향력이 더 크다.

08 매체를 이용할 때는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정보의 출처가 정확한지, 관점이 공정한지,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9 ㄱ은 국민들의 독서량이 증가한 사례, 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게 된 사례, ㄷ은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사례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ㄴ, ㄷ.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검증 없이 수용한 사례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10 ㉠과 ㉡ 모두 인공 지능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만으로 어느 것이 더 전문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단원 평가문제

01 ③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가다', '먹다'는 동사이고, '작다', '차갑다'는 형용사이다.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07** ③ **08** ② **09** ③ **10** ④ **11** ② **12** 밑줄 친 품사는 부사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13** ④ **14** ⑤ **15**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중 매체가 적절하다. **16** ③ **17** ⑤ **18** ④ **19** 시청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20** ②

01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중요성을 비교할 수는 없다.

02 '너희'는 대명사, '하나'는 수사, '집'은 명사로 모두 체언이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수식언에 대한 설명으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②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관계언에 대한 설명으로,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03 '그러게'는 감탄사이지만 '누리야'는 명사 '누리'와 조사 '야'가 결합한 말이다.

04 '배고픈'과 '무서웠다'는 모두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 '피해'는 동사, ㉡ '허겁지겁'은 부사, ㉢ '까지'는 조사, ㉣ '이'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05 ㉠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며, ㉡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수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③ 명사 중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는 구체 명사,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를 추상 명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과 ㉡은 수사이다.

④ 수사는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⑤ 품사는 수사로 동일하다.

06 '가다', '먹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고, '작다', '차갑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단어들의 품사를 알맞게 분류하여 썼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는 내용을 썼다.	

- 07 '조금'은 용언인 '두고'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나머지 단어는 모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참고 자료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로, 이 둘을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한다. 관형사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의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용언(동사, 형용사)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 08 '이', '을'은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앞에 오는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것은 '도', '만', '조차', '마저'와 같은 보조사이다.

- 09 '오'는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나 '벌써'는 생략된 용언인 '도착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10 '곧'은 뒤에 오는 용언 '개봉한대'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우리'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 ② '곱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③ '나타날(나타나다)'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⑤ '절대'는 용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부사이다.

- 11 '성실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성실해져라' 또는 '성실하게 지내라'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즐겁다' 또한 형용사이므로 '즐겁게 보내세요'와 같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ㄴ. 관형사를 잘못 활용한 사례이다. 관형사 '몇'은 수를 묻는 말로 '요일'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요일이야'로 써야 한다.

ㄹ, ㄴ. 단어를 잘못 활용한 사례가 아니다.

- 12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부사이다. 부사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글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도록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가 부사라는 내용을 썼다.	
부사가 글에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13 대중 매체는 공공적인 사안을 주로 다루며 대다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나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제작자가 자신의 취향, 관심사 등을 반영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한다.

- 14 (나)는 대중 매체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수용자가 생산자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⑤와 같은 특성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작용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나타난다.

- 15 전 국민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대중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썼다.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들어서 썼다.	

- 16 <보기>의 대화를 통해 뉴스와 같은 대중 매체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체에서 얻은 정보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17 (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방송 제작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반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

- 18 (가)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대중 매체에 속한다. 이러한 매체는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정보나 대중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한다. 또 매체의 특성상 방송의 시청자끼리 활발하게 소통하기가 어렵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친밀하게 소통하기에 적절한 매체는 (나)이다.

- 19 <보기>에서 게시판통해 시청자가 제안을 하였으나, 촬영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가)와 같은 대중 매체는 실시간 상호 작용이 어렵고, 시청자의 의견도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대중 매체는 시청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20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간단한 장비로 제작할 수 있기에 제작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그리고 방송의 시청자 수, 영상의 조회 수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오답 풀이 | ㄱ.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제작자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방송 주제의 폭이 넓다.

ㄴ, ㄹ.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인력 없이, 전문 장비 없이 개인이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

3 갈등을 딛고 크는 우리들

01 갈등하고 화해하고

본책 96~107쪽

제재

1 ④ 2 ① 3 ② 4 ④ 5 ⑤ 6 ④ 7 ①
8 ⑤ 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③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② 20 ①

- (가)에서 '나'는 자신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쪼이는 것을 보고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닭이 다친 것을 자신이 다친 것처럼 느끼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 점순은 '나'에게 호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봄 감자가 맛있'다며 '더운 김이 뻥 끼치는 굵은 감자'를 먹으라고 건넨 것이다.
- 점순은 '나'에게 애정의 표시로 감자를 주었는데, '나'가 이를 거절하자 분하고 자존심이 상해 눈물을 보이며 달아난 것이다. '나'는 점순의 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점순이 자신을 괴롭힌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며, 점순에게 짓곳은 장난을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나'의 집이 점순네에 땅을 빌려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점순이 '나'의 닭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복복 쓰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나'의 부모님은 점순네에 땅을 빌리고 양식을 꾸어 먹기도 하며,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칭찬한다.
⑤ (바)에서 '나'는 점순이 자신의 씨암탉을 쥐어박는 것을 보고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며 지게막대기로 울타리의 종턱만 후려치고 있다.
- 이 글에서 점순은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다. (마)에 따르면 마름인 점순네에 잘못 보이면 '나'의 집이 쫓겨날 수도 있으므로,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점순과 붙어 다니지 말라며 주의를 주고 있다.
- 점순은 자신이 건넨 감자를 거절한 '나'에 대한 분풀이로 '나'의 닭을 괴롭히는 것이다. 또 일부터 '나'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닭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와 주인공 모두 '나'이다. '나'의 시점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점순은 '나'에게 호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를테면 '나'에게 감자를 주어 호의를 표현하기도 하고, '나'가 감자를 거절하자 '나'를 자극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나'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 여러 차례 '나'의 닭을 괴롭히거나 '나'를 욕하고 약 올리는 행동으로 보아 점순의 성격이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의 집은 소작농이고 점순네는 마름으로, 사회적 계층에 차이가 있다. 점순네한테 잘못 보이면 땅도 집도 모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점순의 괴롭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 점순은 '나'의 집 수탉과 자신의 수탉을 싸움 붙이고(ㄹ),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며(ㄴ), '나'와 '나'의 아버지에게 대해 욕을 하고 있다(ㄱ). 이는 '나'에게 감자를 거절당한 이후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ㄷ. '나'는 점순의 괴롭힘에도 점순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점순네의 울타리만 지게막대기로 후려치고 있다. 즉 집 울타리를 지게막대기로 후려친 것은 점순이 아닌 '나'이다.
ㄱ. 점순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나'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에서 '배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꾀'를 의미한다. 점순이 '나'를 약 올리고 괴롭혀서 그동안 '나'는 분노가 치밀고 억울했지만, 점순이 마름의 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수탉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에, '나'는 나름의 꾀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 자신의 수탉이 매년 점순네 수탉과의 닭싸움에서 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나'는 닭싸움에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그러고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에 자신의 수탉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고추장을 먹인 자신의 닭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 참고 자료

닭싸움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

기대감	점순네 닭을 이기기 위해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닭싸움을 붙임.
기쁨	늘 당하기만 하던 '나'의 닭이 점순네 닭을 공격함.
실망	상황이 역전되어 점순네 닭이 '나'의 닭을 공격함.

12 '나'는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이길 수 있도록 고추장을 먹였으나 끝내 또 지고 말았다. 이에 (타)에서 '나'는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걸'이라고 후회하였다.

13 이 글은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파)의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를 통해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재의 사건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14 비속어 사용은 '나'와 점순의 갈등 상황을 생동감 있게 잘 드러내며, 독자에게 웃음을 주어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점순에게 화가 난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내적 갈등이 아니라 '나'와 점순의 외적 갈등이 잘 드러난다.

③ 점순은 당돌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나'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㉔에 이러한 인물의 특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점순에게 화나는 감정을 격양되고 과장된 어조로 전달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⑤ 비속어는 화가 난 '나'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이 표현이 인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동백꽃」의 해학성

- 마름의 딸인 점순이 소작농의 아들인 '나'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음.
-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순박하고 우둔한 모습을 통해 웃음을 자아냄.
- 토속어, 비속어, 사투리, 과장된 어조 등을 통해 해학성을 더함.

15 '나'의 수탉이 닭싸움에서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호드기만 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치가 떨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라는 표현에서도 '나'가 이 장면에서 점순에게 느낀 감정을 알 수 있다.

16 '나'는 점순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고 만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욕하는 행동을 하는 '나'는 다혈질인 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나'는 이제 마름 집 닭을 죽였으니 큰일 났다는 생각에 울음을 놓았다. 우는 '나'를 보고 점순은 '나'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점순은 '나'가 닭을 죽인 사실을 비밀로 해 주기로 한다. 그리고 함께 동백꽃 속으로 넘어지며 둘의 갈등이 해소된다.

| 오답 풀이 | ① 닭이 죽은 후 놀라서 얼굴에 울음을 놓은 것은 점순이 아니라 '나'이다.

② '나'와 점순은 서로 약속을 하고 있을 뿐, 사과를 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점순네 큰 수탉은 '나'의 닭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가 화김에 단매로 때려죽인 것이다.

⑤ '나'와 점순이 점순의 어머니를 피해 도망을 간 것은 화해를 한 이후의 사건이다.

18 점순은 관심과 호의의 표현으로 '나'에게 감자를 주었으나, '나'는 이를 거절했다. 자존심이 상한 점순은 이날 이후로 '나'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럼 너 이담부팀 안 그럴 테냐?"라는 말은 '나'가 점순이 주었던 '감자'를 거절했던 일을 이르는 것으로, 앞으로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19 '나'는 점순과 겹쳐 쓰러지며 노란 동백꽃 속에 파묻히게 되는 데, 땅이 꺼지는 듯 아찔함을 느낀다. 이는 '나'가 점순을 이성으로 느끼며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20 점순이 '나'가 닭을 죽인 사실을 감추어 주기로 약속하면서 '나'와 점순은 동백꽃 속으로 함께 넘어지게 된다. 이는 '나'와 점순이 화해를 하고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동백꽃'은 두 사람의 갈등 해소를 의미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노란 동백꽃」의 역할

'나'와 점순이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 버린 것은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동백꽃의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를 통해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 01 ② 02 ③ 03 ① 04 “느 집엔 이거 없지?” 5 ①
06 ⑤ 07 ④ 08 일상 굶실거린다. 09 ③ 10 ④
11 ① 12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다. 13 ③ 14 ①
15 ④ 16 ④

01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어, 작품 속 ‘나’가 사건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다. 따라서 ‘나’의 시점에서, ‘나’의 눈에 비친 점순의 행동이 그려지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가 사건의 서술자이므로 ‘나’의 심리만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③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④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이므로 작품 속에서 ‘나’의 시선으로 사건과 등장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⑤ 과거 회상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으며, 과거 회상은 갈등 해결의 의지와 관련이 없다.

02 ‘나’는 자신에게 호감과 애정을 지니고 있는 점순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점순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닭은 덩치 큰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고 피를 흘린다.

② ‘나’가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한 것은 생색을 내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이다.

④ ‘나’는 나흘 전 점순과 있었던 감자 사건을 떠올리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점순이 ‘나’에게 감자를 준 이유는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03 ‘나’가 점순이 호의로 준 감자를 거절하면서 점순은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감자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나’와 점순의 갈등이 시작된다.

04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하며 생색을 내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 때문에 ‘나’는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하게 된다. 또 점순이 준 감자가 ‘나’의 집에는 없다는 사실은 ‘나’의 가정 형편과 점순의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준다.

05 감자를 거절당한 이후 점순은 ‘나’를 괴롭히고 약 올리는 행동을 한다. 이에 ‘나’는 화가 나지만 점순이 마름의 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점순과 ‘나’의 갈등이 중심이 되어 사건이 전개된다.

06 (가)에서 ‘나’에게 감자를 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

현하는 점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가 이를 거절하자 점순은 (다), (라)에서와 같이 ‘나’의 닭을 괴롭히거나 (마)에서와 같이 ‘나’와 ‘나’의 아버지를 욕하는 등 자존심이 센 모습을 보인다.

07 점순은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는 의미로 ‘나’에게 감자를 주었지만,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감자를 거절한다. 이에 점순은 자존심이 상해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에서 ‘나’는 점순이 자신을 까닭 없이 괴롭힌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눈치 없고 우둔한 모습이 드러난다.

08 점순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고 점순이 마름의 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은 (나)의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이다.

09 (다)에서는 ‘나’가 닭싸움에서 점순네 수탉에게 이기기 위해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후, 전과는 다르게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한다. 점순네 수탉이 피를 흘리자 이번에는 ‘나’의 수탉이 반격에 성공한 듯 보여 기뻐한다. 하지만 (라)에서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이 역전되어 점순네 닭에게 또다시 지고 말아 실망하게 된다. 이후 (마)에서는 닭싸움을 시켜놓고 천연스레 호드기를 붙고 있는 점순을 보고 약이 올라 지게막대기를 들고 닭에게 달려든다.

10 (마)에서 ‘나’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에게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반격하여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다. 이 장면은 ‘나’와 점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이다.

11 ‘회를 치다’는 원래 ‘생선이나 고기 등으로 회를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능숙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즉 ㉠은 점순네 수탉이 닭싸움을 아주 잘한다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 ② ‘배채를 차리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피를 내다.’라는 의미이다.

③ ‘쟁그럽다’는 ‘하는 행동이 과장하여 알밋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고소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④ ‘입맛이 쓰다’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기분이 언짢거나 괴롭다.’라는 의미이다.

⑤ ‘단매’는 ‘단 한 번 때리는 매’라는 의미이다.

12 ‘나’는 ‘썩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였다.

평가 기준	확인
‘나’가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3 점순은 ‘나’가 자신의 닭을 때려죽이자 이를 감추어 주겠다고 한다. 또 점순은 ‘나’가 자신의 호의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도록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나’의 대답을 받아 낸다. 이는 점순이 ‘나’와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기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14 이 글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와 점순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파문혀 버린다. 이는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지닌다. 또 동백꽃을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로 표현하며 ‘나’와 점순의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와 점순은 갈등을 모두 해결한 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문된 것이므로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됨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분노에 휩싸여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나’는 점순이 “뭐, 이 자식이! 누 집 닭인데?”라고 하는 말을 듣자, 마름인 점순네 닭을 죽였다는 현실을 깨닫고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라며 앞일을 걱정하게 된다.

16 <보기>에는 자신이 혼나는 이유를 몰랐지만 더 이상 혼나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말한 경험이 나타나 있다. (라)에서 점순이 “너 이담부터 안 그럴테냐?”라고 물었을 때, ‘나’ 역시 무엇을 안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래!”라고 무턱대고 대답한다. 자신이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일로 점순네에 잘못 보여 집도 내쫓기고 땅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이제 안 그러겠다고 대답부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전 학습

본책 112~115쪽

1 ③ 2 ④ 3 ① 4 ② 5 ① 6 ① 7 호부호형, 입신양명 8 ④

1 (가)에서 ‘길동이 점점 자라 여덟 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 정도’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길동은 열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 고민을 말한다.

② 길동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총명하여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았다. 친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길동은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고 싶지만 신분이 천하여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다.

⑤ 길동의 아버지는 재상이었지만, 어머니는 천한 종의 신분이었다. 길동은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천한 열자의 신분이 되어 천대받았으나 부모가 모두 천한 신분이었던 것은 아니다.

2 길동은 자신이 천한 신분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고,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고 싶지만 과거 시험도 볼 수 없다며 통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와 길동은 천민으로 신분이 같다.

② 길동은 친아버지와 신분이 달랐을 뿐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③ 길동은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고 싶지만 신분이 천하여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

⑤ 길동은 무관으로서라도 출세하고 싶으나 신분의 제약으로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3 공은 길동의 서러움을 듣고 되려 크게 꾸짖어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공의 태도를 알 수 있으며, 공은 길동에게도 현실에 순응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4 이 글에서 길동은 자신의 천한 신분으로 인한 신세를 한탄하며 억울해하고, 그 서러움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털어 놓는다.

5 길동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입신양명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한다.

|오답 풀이| ② 길동은 열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③ 길동은 장충의 아들 길산을 본받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지, 길산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④ 길동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⑤ 길동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모아 사회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6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길동의 처지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재상 집안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러한 처지에 불만을 갖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두 사람 모두 신분제에 따라 차별하던 당시의 사회 제도를 저항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이 글에서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고 싶지만(호부호형) 열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또 천한 신분으로 인해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고 싶은 꿈도 이룰 수가 없다.

8 이 글에서 길동은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열자이다. 당시 사회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고 차별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다.

| 오답 풀이 | ① 길동은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명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가 무관보다 문관을 중시하는 유교 중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⑤ 길동은 천한 신분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한 것이며, 그 결과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난도 읽 심화문제

본책 116~119쪽

01 ④ 02 과거에는 동리의 소문처럼 점순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점순을 미워하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② 08 ③ 09 ⑤

10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낸다. '나'와 점순의 뜻밖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11 ③ 12 길동은 흥 판서 앞에서는 '소인'으로, 어머니 앞에서는 '소자'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 이는 흥 판서는 자신과 다른 양반이고, 어머니는 자신과 같은 천민이기 때문이다. 13 ② 14 ⑤

01 이 글은 비속어와 과장된 어조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외적 갈등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비속어와 과장된 어조를 통해 심한 내적 갈등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닭싸움 사건 전에는 '나'도 동리 소문처럼 점순을 좋게 보았다. 그러나 감자를 거절한 후로 점순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골리는 것에 치가 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점순을 미워하며 점순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반영되어 (라)에서 점순을 묘사할 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과거에는 점순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현재는 점순을 미워하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3 점순은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나'가 오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보란 듯이 '나'의 닭을 괴롭히고 있다. 이는 점순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 오답 풀이 | ① 점순은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감자를 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어서 점순이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라고 한 것을 통해, 점순이 자신의 호감을 주변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점순의 얼굴이 새빨개진 것은 '나'에게 감자를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③ 점순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게 보복하는 한편,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의 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닭싸움에서 매번 당한 것은 점순의 닭이 아닌 '나'의 닭이다.

⑤ 점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나'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나'가 점순네 닭을 죽인 사실을 감추어 주기로 한 것이다.

04 (가)에서 '나'에게 감자를 주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을 통해 점순이 조숙하고 당돌한 성격(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에서 어른들의 농담을 받아치는 장면을 통해 시원시원하고 천연덕스러운 점순의 성격(ㄷ)을 알 수 있으며, (라)에서 '나'의 닭을 데려다 싸움을 붙여 '나'에게 보복하는 장면을 통해 점순에게 자존심이 세고 집요한 면이 있음(ㄴ)을 알 수 있다.

05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작품의 서술자이다. 서술자를 '나'에서 점순으로 바꾸어 쓴다면, 일단 점순을 '나'로 지칭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점순의 내면 심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점순이 한 행동의 이유도 '나'를 통한 추측이 아니라 점순의 서술을 통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다. 반면에 '나'의 감정은 서술자인 점순이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없으므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 참고 자료

소설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함.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세히 알 수 있으나, '나'가 알지 못하는 정보는 독자도 알지 못함.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함. 주인공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세히 알 수 없음.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함. 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알기 어려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서술함. 독자가 작품 속 상황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음.

06 <보기>는 이렇게 되면 나도 꾀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매번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 (마)에서 '나'는 점순네 닭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마) 앞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7 이 글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나)에 '나홀 전'이라고 제시된 것으로 보아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여 준다.

④ 서술자는 1인칭인 '나'로 동일하다.

⑤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며, 현재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08 (다)에서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더니 맨날 당하기만 하던 '나'의 수탉이 드디어 점순네 수탉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수탉에게 고추장만 먹이면 점순네 수탉을 혼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속으로 고소하게 느낀다. '쟁그럽다'는 말은 원래 '행동이 과장하여 얄밋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고소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오답 풀이 | ① '열병거지'는 매우 급하게 치밀어 오르는 화중인 '열화'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므로 '열병거지가 났다.'는 '화가 났다.'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수탉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났다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

②, ④, ⑤ 닭싸움에서 계속 지던 자신의 수탉이 드디어 점순네 닭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므로, '겁을 먹었다, 약이 올랐다, 정신이 아찔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09 ㉔에서 점순이 나의 어깨를 짚은 채 동백꽃 속으로 그대로 픽 쓰러진 것은 점순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다. 우둔한 '나'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이 무엇인가에 떠다 밀렸다고 생각한 것으로, 점순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떠다 밀린 것은 아니다.

10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일을 점순이 감추어 주기로 하면서 둘은 화해를 하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이는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로 두 사람의 풋풋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인물의 갈등과 연관 지어서,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썼다.	
작품의 주제와 연관 지어서, '나'와 점순의 풋풋한 사랑, 감정을 표현한다는 내용을 썼다.	

11 길동은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 정도로 총명했으나 천한 출생으로 인해 호부호형할 수도,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할 수도 없다. 즉 길동의 갈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와 규칙으로 인한 것이다.

12 길동은 (다)에서 양반인 흥 판서 앞에서는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고, (라)에서 같은 천민 출신인 어머니 앞에서는 자신을 '소자'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달랐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소인'과 '소자'라는 호칭을 각각 알맞게 썼다.	
호칭이 다른 이유가 신분 때문이라는 것을 썼다.	

13 길동은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에 순응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현실이 불합리하다면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사회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길동과 유사한 삶의 태도이다.

14 (나)에서 길동은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공맹은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뜻하는 말이며, 이를 통해 당시가 무관보다 문관을 중시하는 유교 중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02 존중하고 배려하고

활동 학습

본책 122~129쪽

1 ② 2 ② 3 ② 4 ④ 5 ③ 6 ④ 7 ④
8 ⑤ 9 ③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④

- 언어폭력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배가 아파 시험을 망친 찬우가 속이 상하여 친구들에게 온라인 대화로 말을 걸었는데, 친구들은 찬우의 마음에 공감하거나 위로를 해 주지 않고, 오히려 찬우를 무시하고 피병이라고 비난한다. 이로 인해 찬우는 상처를 받고 속상해하고 있다.
- 찬우는 속상한 일이 있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 대화로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과 싸우게 되었다. 과거 찬우는 친구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자신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찬우는 주위 사람들과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인 언어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④에 나타난 상대방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하여 말하는 것은 언어폭력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 나가기 위한 점검 기준에 가깝다.
- 특별한 의도 없이 재미 삼아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또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는 상대방과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제시된 책에서 언어폭력은 말로 상대를 때리는 것과 같아 신체적 폭력만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큰 흉터를 남기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만큼 상처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지 언어폭력이 신체적 상처를 남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중학교 때 언어폭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중학교 시기가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⑤ 제시된 책에서는 중학교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이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언어폭력

으로 인한 상처가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언어폭력을 들은 사람은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온라인 소통 공간에 치우친 언어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부정적인 내용을 전할 때는 자칫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면 상대방은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부탁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 갈등이 생기지 않고 서로 즐겁게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 '아빠다리'는 성별에 따른 차별, '양반다리'는 신분 계급에 따른 차별적인 관점이 반영된 표현이다. 이러한 차별적 표현은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 차별적인 표현은 특정 인종, 세대, 성별, 외모 등을 지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차별적 표현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는 표현일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대체해야 한다.
④ 차별적인 표현은 인종, 세대, 성별, 외모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기보다 이들의 특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생겨난 표현이다.
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도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차별적 표현일 수 있다.
- 부탁을 할 때 상대방에게 명령하듯이 하지 않고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언어 습관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②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을 해야 한다.

⑤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14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할 때는 자신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한 말의 의도를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것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가깝다.

독집계 **썩** 예상 문제

본책 130~133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② 05 ① 06 ③
07 폭력 08 ⑤ 09 ③ 10 ㉠: 나, ㉡: 나 11 ③ 12 ④
13 ⑤ 14 ② 15 ⑤ 16 ④

01 찬우는 자신이 과거에 윤호에게 했던 말실수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찬우가 언어폭력을 듣게 된 이유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찬우는 일기의 끝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③ 찬우는 윤호에게 말실수했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쓰았던 화살이 되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찬우는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친 것에 대해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말을 곁었다고 하였다.

02 (나)의 대화에서 찬우와 친구들은 서로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였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렇듯 폭력적인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찬우와 친구들이 성적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성적이라는 주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민한 주제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04 (가)의 공익 광고는 장난으로 던진 말이 당하는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나)의 책은 언어폭력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전하고자 하는 공통된 내용은 언어폭력이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는 것이다.

05 언어폭력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여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욕설이나 헐뜯는 말을 하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무시하거나 비웃는 말을 하는 행위,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을 하는 행위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 상대방보다 많은 말을 하는 행위나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행위는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이 아니다. ㉢ 상대방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 행위는 원활한 대화를 방해하는 행동이지만 언어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

06 (나)는 언어폭력이 이를 경험한 사람에게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상처를 남긴다는 내용이다.

07 비속어나 무시하는 말과 같은 언어폭력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언어폭력을 자주 사용하면 말과 행동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08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평상시 대화할 때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소통 공간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과 관련이 없다.

09 상대방을 존중하며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여 말할 필요는 없다.

10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말하기 위해서는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탓하기보다,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11 (다)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반감을 느끼지 않아서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반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며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12 ④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답을 하지 못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고, 바로 답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올바른 표현이다.

13 <보기>는 명령하는 표현을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명령하는 표현보다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강요받는 느낌이 들지 않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므로,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14 (가)는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지만 사소해서 알아차리기 힘든 차별적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무심코 쓰는 차별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임을 알 수 있다.

15 (나)의 ‘아빠다리’와 ‘양반다리’는 성별과 신분 계급에 따른 차별이 드러난 표현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표현은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⑤의 ‘한부모 가족’은 차별적인 표현인 ‘편부모 가족’을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살색’은 피부색 차별과 관련된 단어로, ‘살구색’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② ‘뽕어리장갑’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손모아장갑’과 같이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③ ‘촌티’는 시골 지역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요린이’는 ‘요리+어린이’로, 어린이는 무엇이든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편견이 담긴 차별적 표현이다. 따라서 초보자, 입문자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보기>는 친구가 늦게 나와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과 바라는 점을 차분하게 말하여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존중과 배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

발전 학습

본책 134~135쪽

1 ① 2 ① 3 ③

1 이 글은 빛나라가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여 갈등이 생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2 빛나라는 겉모습이 다른 서우를 외국인으로 여기는 댓글에 동조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담긴 말을 하였다. 이는 서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언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원인은 빛나라가 친구들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차별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난도 읽기 심화 문제

본책 136~137쪽

01 ② 02 ③ 03 ② 04 ‘나’를 주어로 하여 말하기,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③

01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제로 글을 쓸 때는 언어폭력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 등을 근거로 드는 것이 적절하다. ②는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아니므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02 <보기>의 공익 광고는 언어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광고에 나타나지 않으며,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므로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ㄱ은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은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ㄷ은 비슷한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기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이 되기도 하므로 말을 가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모두 말과 관련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존중하는 언어생활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ㄴ. 좀 무안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로, 존중하는 언어생활과는 관련이 적은 표현이다.

ㄹ.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말을 아끼는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04 ⑥는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앞으로는 미리 연락해 줄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나’를 주어로 말했다는 내용을 썼다.	
제안하는 표현으로 말했다는 내용을 썼다.	

05 <보기>는 학생회 활동으로 바쁜 친구가 푸념하는 상황임으로,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힘든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를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06 주어진 내용은 ‘차별적 표현’을 ‘미세 먼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차별적 표현’과 ‘미세 먼지’가 지니는 공통된 속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차별적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ㄴ) ‘미세 먼지’처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문 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해 사라져야 할 것이다(ㄷ).

| 오답 풀이 | ㄱ.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은 ‘차별적 표현’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ㄴ. ‘차별적 표현’은 성별, 세대, 인종에 따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미세 먼지’는 이들과 관계가 없다.

ㄷ.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차별적 표현은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07 ③은 ‘덤벙대다’라는 표현을 ‘덜렁거리다’로 바꾼 것일 뿐, 친구를 향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꾼 표현이 아니다. ‘덤벙대다’, ‘덜렁거리다’와 같은 표현은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나오느라 준비물을 챙겨 오지 못했구나.’와 같이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다.

08 빛나라는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친구들의 기분을 해아리지 않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친구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무시하며 친구들에게 명령과 공격을 일삼는다면 빛나라는 더 이상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09 <보기>의 실시간 댓글 창에는 출연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과 조금 먹는 것, 보기 싫다는 내용 등 출연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는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함부로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38~141쪽

- 01 ④ 02 점순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④ 08 ②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① 14 ③ 15 ③ 16 명령, 제안

01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심리가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나지만, '나'가 점순의 속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점순의 심리는 세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비친 점순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02 점순이 '나'에게 했던 행동에는 감자를 주었던 일, 감자를 거절 당한 후 '나'를 괴롭히고 약 올렸던 일 등이 있다. '나'를 괴

롭히고 약 올렸던 행동들도 모두 '나'를 싫어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의 관심을 끌고 싶었기 때문이다. (바)에서 점순이 앞으로는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잘못을 집에 이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나의 어깨를 짚은 채 동백꽃 속에 쓰러지는 장면에서도 점순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점순이 '나'를 좋아한다, 호감이 있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3 '나'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고 만다. 그러나 <보기>에 나타나듯이, 점순은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점순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적 계급의 차이로 인해 점순네 닭을 죽인 것이 '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앞으로 땅이나 집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을 것이다.

04 ㉔은 '나'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해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게 되는 장면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위기감과 긴장감도 극대화된다.

05 '나'는 점순이 호의로 준 '감자'를 무뚝뚝하게 거절하고, 이에 마음이 상한 점순은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나'가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한 사건은 '나'와 점순의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06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반격을 가하자, 고추장을 먹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생각되므로 위기감과 긴장감이 느껴지는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어지는 장면에서 '나'의 닭은 점순네 수탉에게 또 지고 말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④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의 수탉은 또다시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게 된다.

⑤ 고추장을 먹이면 닭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어리숙한 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07 이 글에서 길동은 양반인 아버지와 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종들에게조차 천대를 받으며 신분 차별을 겪고 있다. (나)에서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을 원통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 종들에게 천대를 받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종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② 아버지는 총명한 길동을 귀여워하지만 호부호형은 허락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길동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이 글에서 길동이 뛰어난 형과 비교를 당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⑤ (나)에서 길동은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병법이라도 익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을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 08** 길동은 문관으로서 출세하지 못할 바에는 무관으로서라도 출세를 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다. ㉠을 통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중시하고, 무관보다 문관이 더 대접을 받는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 09** (가)와 (나)를 통해 친구들과의 대화 중 사소한 말도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언어폭력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는 말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 11**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을 하거나 장난이라도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친구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남을 헐뜯는 친구에게 그러지 말 것을 충고하는 것 자체는 언어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직설적으로 친구의 잘못을 비난하지 말고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 <보기>에는 언어폭력은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깊은 상처를 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중학교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뿐, 언어폭력이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 ③ 언어폭력이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신체적 폭력의 고통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중학교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청소년과 성인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언어폭력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겪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신체적 폭력이 인간관계에 주는 영향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3** (가)와 (나)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으로, 각각 존중하지 않는 표현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가)는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 (나)는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 14** <보기>의 대화에서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말을 들은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사용하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15** 이 글에서 서우는 자신의 겉모습을 보고 외국인이라고 여기는 댓글들에 당황하며, 자신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빛나라는 자신도 서우가 외국인인 줄 알았고, 한국말을 당연히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해서 당황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우를 배려하지 않고 차별에 동조하는 표현이며,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말을 못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외국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다.
- 16** ㉠에는 빛나라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명령조로 말하며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부탁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명령이 아닌 제안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4 문제를 풀어내는 슬기로운 방법

0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제재

본책 146~151쪽

1 ③ 2 ② 3 ④, ⑤ 4 ④ 5 ③ 6 ③ 7 목적
8 ③ 9 ⑤ 10 ④

1 이 토의는 최근 학교의 분실물 보관함이 꼭 차다 못해 넘치고 있는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토의 참여자들은 교내 분실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를 시작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분실물 보관함의 상황을 제시하고,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라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인 윤서, 준후, 신비를 소개하고 있다.

3 준후는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보여 준다면 학생들이 잃어버렸던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물건을 찾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들었다.

|오답 풀이| ①, ②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이동하자.'라는 윤서의 제안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③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라는 신비의 제안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4 ㉠은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소지품에 이름을 쓰는지 조사한 결과로,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쓴다는 학생은 27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물건에 이름을 쓰는 학생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기자는 윤서의 제안에 대해 준후는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질문하고 있다. 이에 윤서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1층에 두면 누구나 쉽게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분실물 보관함이 1층에 있는 것은 아니며, 분실물 보관함을 없애겠다는 의견도 나타나지 않는다.

6 ㉠에서 신비는 협력적인 토의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로, 발언 중인 준후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준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준후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표한 것은 신비가 아니라, 이후에 발언한 윤서이다.

7 신비가 준후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고 비난하는 태도로 말을 하자, 우주는 토의의 목적을 언급하며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토의를 통해 합리

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토의 참여자들의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8 신비는 토의자 및 청중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전교생의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는 것이 무리임을 깨닫고 자신의 제안을 철회한다. 그리고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할 때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남기자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안을 수정하고 있다.

9 이 토의에서 가운, 시우, 주리는 청중으로서 토의자의 제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를 통해 토의자의 의견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해당한다.

③ 토의자가 하는 역할에 해당한다.

10 신비는 자신이 제안한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는 방안이 무리라고 보고 제안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름 스티커 제작 비용을 학생회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은 토의 결과 합의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집해 썩 예상 문제

본책 152~155쪽

01 ④ 02 ② 03 패널 토의 04 ⑤ 05 문제 상황, 토의자 06 ③ 07 ② 08 ③ 09 ③ 10 토의자 간의 의견을 교환한다. 11 ④ 12 ② 13 ③ 14 가운, 시우, 주리 15 ③

0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것은 '토론'이다.

참고 자료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

토의	토론
-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협력적 의사소통 -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의논함.	-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각각 자기편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짐.

02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토의 주제와 토의 방식을 정하고, 토의할 내용을 마련한다. (가)에서 학생들은 학교 분실물 보관

함이 꼭 찬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고, 자신들이 패널이 되자고 하며 토의 방식을 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토의의 마무리 단계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정하고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다.

④, ⑤ 토의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03 (가)에서 신비는 '분실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준후, 윤서, 신비)'가 패널이 되어 의견을 주고받자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패널이 되어 의견을 교환한 뒤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토의를 '패널 토의'라고 한다.

04 (나)에서 윤서는 현재 분실물 보관함이 4층 구석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보관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분실물 보관함을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기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토의 시작 부분에서 사회자인 우주는 학교의 분실물 보관함과 관련한 문제 상황과 토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토의 주제와 토의자(학생회의 윤서, 준후, 신비)를 소개하고 있다.

06 윤서는 현재 4층 복도 구석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 분실물 보관함을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것은 준후의 제안이다.

②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는 것은 신비의 제안이다.

④, ⑤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자는 것은 준후가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다.

07 신비는 학생들이 소지품에 이름을 쓰는지 조사한 결과와 이름 스티커의 장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에서 이름 스티커 제작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08 토의자들이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의 분실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 토의의 주제로는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가 가장 적절하다.

09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이 꼭 찬 것이 문제라면 먼저 그 안의 물건을 정리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비의 지적을 듣고, 분실물 보관함의 물건을 다 꺼내서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한 뒤 정리 담당자를 두고 돌아가면서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신비가 정리 담당자를 두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즉 정리 담당자를 두는 것은 윤서의 의견이므로 윤서가 신비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10 (가), (나)에서는 토의자가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는 패널 토의의 절차 중의 한 단계로, 패널의 제안 후 패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평가 기준	확인
토의자 간 의견을 교환한다는 내용을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11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토의 참여자들의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비가 준후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고 비난하는 태도로 말했기 때문에,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비에게 주의를 주며 ㉠처럼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목소리를 높여 위협적으로 말하며 준후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윤서가 아닌 신비이다.

② 준후는 신비의 질문 내용과 관련된 답변을 하다가 신비 때문에 말이 끊겼다.

⑤ 윤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준후의 발언 내용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 이와 다른 자신의 의견도 제시했다.

12 ㉠에서 윤서는 '분실물 찾아 주는 날' 캠페인에 대한 준후의 발언 내용에 일부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낸 뒤, 이어진 발언에서 준후가 제시한 의견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13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는 그대로 둔 채 분실물을 정리하고 물건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었고, 신비는 전교생의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는 제안을 철회하였다. 이를 통해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청중은 발표를 집중해서 듣고, 토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발언 기회를 얻어 토의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이 토의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운, 시우, 주리이다.

15 신비는 윤서와 준후의 의견을 듣고 단체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따라서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은 토의 결과 합의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나)에서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며, 분실물을 정리하고 물건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만으로도 분실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④ (가)에서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⑤ (나)에서 분실물 보관함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폐기할 물건을 따로 빼 두고,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물건을 골라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발견 학습

본책 156~157쪽

1 ③ 2 ①, ⑤ 3 ②

- 1 (가)의 카드 뉴스에는 다양한 이유로 버려진 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 2 '건설사 대표' 역할은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건축 기술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 기술의 보완(①)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⑤)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바닥 충격음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 담당 부서'와 관련된 역할의 의견과 근거로 적절하다.
③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입주자들의 다짐과 실천 방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 모임'과 관련된 역할의 의견과 근거로 적절하다.
- 3 모둠별 토의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할 때는 최신 자료인지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검증된 자료인지를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58~161쪽

- 01 ⑤ 02 ② 03 ④ 04 저는 분실물 보관함을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05 분실물 보관함 안에 있는 물건을 담당자가 돌아가며 정리한다. 06 ④ 07 ④ 08 ③ 09 ④ 10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이동하자는 의견을 철회했고, 신비는 전교생의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11 ③ 12 ④ 13 ③ 14 층간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15 ②

- 01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가 필요한 문제 상황과 토의자 및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토의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할 뿐,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 02 사회자인 우주가 토의의 배경과 주제를 소개한 뒤, 토의자인 윤서, 준후, 신비가 각각 근거를 들어 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패널 토의의 과정 중 '토의자의 제안' 단계이다.
- 03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학생이 24명이므로, 이 그래프를 통해 소지품에 이름을 쓰는 학생과 이름을 쓰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라는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로, 신비가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② 100명 중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꼭 쓴다는 학생은 27명으므로, 전체의 27%이다.
⑤ 그래프를 통해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04 윤서는 현재 분실물 보관함이 4층 복도 구석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지나가는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분실물 보관함을 옮기면 학생들이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⑦에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1층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들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분실물 보관함을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긴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5 분실물 보관함을 옮길 때 그 안의 물건을 꺼내서 정리하고, 이후 정리 담당자를 두고 돌아가면서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한 윤서의 의견에 신비와 준후가 동의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분실물 보관함의 물건을 담당자가 돌아가면서 정리한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06 <보기>를 통해 학생들이 주로 분실하는 물건의 종류로 필기 도구, 의류, 생필품, 소형 물품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에 대해 이름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운 물건도 많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학생들이 주로 분실하는 물건은 학용품이지만, 다른 유형의 분실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③, ⑤ <보기>의 자료와 관련이 없는 의견이다.

- 07 ㉠에서 신비가 준후의 말을 끊으며 협력적인 토의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문제이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 08 이 토의는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패널이 되어 의견을 교환한 후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패널 토의'이다. 토의 주제에 대해 강연한 후 청중의 질의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 토의 유형은 '심포지엄'이다.

- 09 준후, 윤서, 신비는 토의자로서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한편, 다른 토의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준후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한 뒤 토의 흐름에 맞게 발언하고 있으므로, 발언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 볼 수는 없다.

- 10** 윤서와 신비는 청중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있다.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자는 의견을, 신비는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평가 기준	확인
윤서가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자는 의견을 철회하였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신비가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는 의견을 철회하였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11** ㉠의 질문을 통해 토의자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하면서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은 자신 단체에 기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12** 전문가들이 토의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하고 난 뒤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토의 형식인 '심포지엄'은 주로 학술적인 주제를 다룬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학교 주변 환경, 청소 당번 정하기, 체육 대회 때 응원 방법 정하기 등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주제이므로 토론에 더 어울리는 주제이다. 이 주제로 토론을 한다면 논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와 같은 평서문으로 정해야 한다.

- 13** 음식을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음식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14** 카드 뉴스에서는 중간 소음으로 인한 신고와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여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 상황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토의 주제로 하기에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중간 소음'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를 알맞게 썼다.	

- 15** 정부 정책 담당 공무원은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여 중간 소음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따라서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데시벨(dB)에 따른 소음 기준표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2 주장하는 글 쓰기

본책 164~169쪽

활동 학습

1 ③ 2 ② 3 ④ 4 근거, 이유 5 ②, ④ 6 ⑤
7 ② 8 ② 9 ③

- 1** 신비가 집에서 본 뉴스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허전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신비의 하갯길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며 일상의 여유나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④ 신비의 등갯길에 도로에서, 보행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빨간 불에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⑤ 신비가 집에서 본 뉴스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서 우울하다는 청소년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 2** 신비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담아서 글을 써 보겠다고 말하며, 글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 3** 신비네 모듬의 토의 내용에 따르면, 예상 독자는 반 친구들이고, 글의 목적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알고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글의 주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이며, 이용할 매체는 학교 신문이다. 그러나 글의 분량에 관한 계획은 나타나지 않는다.

- 4**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정리해야 한다. ㉠, ㉡의 자료를 통해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의 자료를 통해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 ㉤의 자료를 통해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인간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를 만들 수 있다.

- 5** ㉣는 스마트폰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이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책의 내용이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는 '누군가가 그랬어'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는 책에 제시된 내용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는 스마트폰의 단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을 줄이자.'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를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스마트폰에 대한 단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⑤ ㉣와 ㉤는 모두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자료이다.

- 6 주장하는 글의 결론에서는 본론을 요약정리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제시된 개요의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 집에서 ~ 자주 일어나므로'라며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 7 주장하는 글의 제목은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을 바꾸려면 주장이 잘 드러나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 | 오답 풀이 |** 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내용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해당한다.
 ③ 글쓴이의 일부 의견에 해당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글을 쓰게 된 문제 상황에 해당한다.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한 내용으므로, 이 글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 8 ㉠은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처럼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 9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독집계 **썩** 예상 문제

본책 170~173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③ 05 ② 06 ⑦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⑤ 12 ⑤ 13 (가) / (나),
 (다), (라) / (마) 14 ⑤ 15 ④ 16 ⑤ 17 ②

- 01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④에 나타난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설명은 설명문의 특징에 해당한다.
- 02 (가)에서 신비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나)에서 모두 구성원과 대화하며 주장하는 글 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 03 신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문가의 말을 보고 있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한 모습으로,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없다.

- 04 (나)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자고 했으므로, 이 글의 목적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글의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
- | 오답 풀이 |** ①, ② 신비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담아서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④ 준후는 반 친구들을 대상을 글을 써 보라고 하였다.
 ⑤ 윤서는 학교 신문에 글을 투고해 보자고 하였다.
- 05 ㉠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의 59.8퍼센트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가족과 다툼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모든 청소년이 가족과 다툼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아니다.
- 06 (나)에 제시된 개요의 서론에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다.
- 07 ㉡은 스마트폰의 장점에 관한 책의 내용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 08 주장하는 글의 본론에는 다양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독자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결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나)의 '이유 2'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대신할 건전한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유와 관련이 없는 근거이다.
- | 오답 풀이 |** ①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이유 1(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과 관련이 있는 근거이다.
 ③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유 2(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와 관련이 있는 근거이다.
 ④, ⑤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유 3(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과 관련이 있는 근거이다.
- 10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수집할 만한 자료의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된 ⑤가 가장 적절하다.
- 11 (나)의 결론에서는 '우리 집에서 일어난 갈등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의 결론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 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은 잘 드러나 있다.

② 문제 상황은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론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점은 아니다.

③ 여러 가지 매체 자료는 주로 본문에서 활용한다.

④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주제에 부합한다.

12 (다)에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에서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스스로 세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우면 각종 사고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결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주의가 분산’되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 응답자 중 59.8퍼센트가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면 단답의 형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가)는 문제 상황과 글을 쓴 목적을 제시하는 ‘서론’ 부분이고, (나)~(라)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본론’ 부분이며, (마)는 본론을 요약정리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결론’ 부분이다.

14 주장하는 글에서 ㉔처럼 글쓴이의 생각을 주관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 ①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글의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거북 목 증후군’과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의 단어는 이 글의 독자인 중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쳐 쓸 수 있다.

③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찾아들다(찾아든다)’는 ‘거칠거나 들뜬 기운이 가라앉아 잠잠해져 가다.’라는 뜻의 단어이고, ‘찾아지다(찾아진다)’는 ‘어떤 일이나 행위 따위가 자주 있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과 이유, 근거 자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장과 관련이 적은 이유와 근거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16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주제로 적절하다. 인공 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자는 것은 설명문에 어울리는 주제이다.

17 <보기>는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량을 줄이자는 주장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이 공부할 때 카페인 음료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카페인 음료의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과도한 카페인 섭취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발전 학습

본책 174~175쪽

1 ② 2 ③ 3 ④ 4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 이 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청중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연설문이다.

+ 참고 자료

연설의 개념과 구성 요소

개념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중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방식
연설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구성 요소	청중 연설을 듣는 사람
메시지	연설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

2 이 연설문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인권이 동등하므로, 희망을 가지고 다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 자유를 찾을 거라고 주장하며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 등을 통해 흑인이 백인과 식탁에 나란히 앉지 못하고 피부색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미국의 건국 신조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우리는 절망이라는 산을 깎아 희망이라는 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와 같이 비유적,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희망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 3 연설자인 마틴 루서 킹은 ‘연방 법령 실시 거부’ 같은 말만 떠벌리는 앨라배마주에서 흑인과 백인 소년·소녀들이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게 되리라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방 법령 실시를 거부하는 것은 앨라배마주의 인종 차별주의자들임을 알 수 있다.
- 4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반복하여 연설자의 소망(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76~179쪽

- 01 ② 02 ⑤ 03 ② 04 ②, ④ 05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06 ② 07 ④
- 08 이와, 보자, ‘이와 같이’부터 문단을 나누어야 한다. 09 ③
- 10 ② 11 ⑤ 12 희망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13 ③

01 신비가 등하굣길과 집에서 경험한 일 중,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쳐보는 모습은 없었으므로 ②는 (가)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신비네 모듬은 (가)에서 신비가 겪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라는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나)에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담아서 글을 쓰기로 하였을 뿐,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신비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② 글의 주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로, 주장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로 정하고 있다.

③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 보기로 하였다.

④ 글을 잘 써서 학교 신문에 투고하자고 하였다.

03 (가)~(마)는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이다. 이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04 <보기>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에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 중 과반수 이상이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과 갈등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라)에는 스마트폰에 빠지면 사회성이 발달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나)와 (라)를 통해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5 <보기>는 신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찾은 자료이다. ‘누군가가 한 말’이라서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평가 기준	확인
객관적이거나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6 (다)의 텔레비전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켰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07 ‘스마트폰, 지나친 사용은 금물’로 제목을 고치면, 글의 주장과 글을 쓴 목적이 더 잘 드러난다. 또 제목을 통해 독자에게 앞으로 이어질 글 내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즉 <보기>의 제목에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에 대한 경계만 드러날 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08 이 글에서는 본론과 결론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론이 시작되는 ‘이와 같이’부터 문단을 나누어 두 문단으로 수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결론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알맞게 썼다.	
문단을 나누어 수정해야 함을 알맞게 썼다.	

09 ㉠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글의 주제,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10 연설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중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고, 주장하는 글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따라서 연설문과 주장하는 글은 모두 청중이나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이다.

| 오답 풀이 | 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은 이 연설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일반적인 연설문이나 주장하는 글의 공통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설명문, ④ 시, ⑤ 수필의 특징에 해당한다.

11 이 연설문에는 ‘언젠가 내 아이들(혹은 소년·소녀)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12 마틴 루서 킹은 이 연설문을 통해 ‘희망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희망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3 연설문이나 주장하는 글의 제재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주장이나 생각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연설문이나 주장하는 글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80~183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④
08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09 ① - ㉔ - ㉕ - ㉖ -
㉗ - ㉘ 10 ④ 11 ④ 12 ② 13 ① 14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 문제(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15 ⑤

01 이 토의는 교내 분실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가)에서는 윤서가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안하고 있고, (나)에서는 다른 토의자들이 윤서의 제안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면 그 질문에 윤서가 답변을 하고 있다. 즉 (나)에서 준후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다.

02 (가)에서 윤서는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1층으로 보관함을 옮긴다면, 학생들이 분실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서 꼭 찬보관함이 금세 빌 것이라고 말했다.

03 (나)에서 “지금부터는 토의자끼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회자 우주의 말을 통해, (나)는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04 토의자들이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근거가 적절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토의자의 개성이 드러나는지는 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05 이 토의는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패널이 되어 의견을 교환한 후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패널 토의’이

다. 이런 패널 토의는 다양한 결론이 예상되는 주제를 토의하는 데 적합하므로, ③이 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유로운 형식의 원탁 토의나 회의의 주제로 어울린다.

②, ⑤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누어 말하는 토론의 주제로 어울린다. 토론에서 다루는 논제는 ‘동물원은 동물들에게 유익한 장소이다.’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처럼 평서문으로 정해야 한다.

④ 전문가들이 강연을 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심포지엄 형식의 주제로 어울린다.

06 (가)에서 신비는 준후가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끊으며 자신의 의견을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준후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중이었고, 말을 끝까지 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준후가 근거 없는 제안을 해서 신비에게 지적을 받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사회자인 우주가 “준후 학생의 제안에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며 토의자들은 준후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② 신비는 준후가 말하는 중간에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④ 우주는 신비가 감정적으로 말한 뒤에, 토의의 목적을 언급하며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비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⑤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후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07 (다)를 통해 이 토의 결과, 분실물을 줄이기 위해 분실물 보관함 안에 있는 물건을 담당자가 돌아가며 정리하고 한 달에 한번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하며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알 수 있다.

08 (다)에서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09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㉔ 문제 상황 파악하기 - ㉕ 계획하기 - ㉖ 근거 마련하기 - ㉗ 개요 쓰기 - ㉘ 글쓰기 - ㉙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10 준후는 스마트폰의 유용성을 언급하면서도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고 있으므로, 신비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가)와 (다)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가)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로, (다)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12 ‘이유 1’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거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서론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③ ‘이유 2’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근거로 적절하다.

④ ‘이유 3’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성 발달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근거로 적절하다.

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결론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 13 주장하는 글의 제목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제목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14 ㉠은 이 글의 주제인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거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15 ㉡은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객관적이고 독자에게 반감을 주지 않는 표현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